



## 돌아온 완전체 슈퍼주니어, 다시 여는 '르네상스'

10번째 정규앨범은 멤버들의 자부심 이번 활동을 새 부흥의 전환점으로 '하우스 파티' 가장 '슈주'다운 노래

'슈퍼주니어의 르네상스.'

한류 아이돌 슈퍼주니어(이특·희철·예성·신동·은혁·동해·시원·려욱·규현)는 '파워 브랜드'라 할 만하다. 2005년 데뷔해 16년 동안 케이팝 그룹의 최정상을 지켜오고 있다. 또 드라마, 뮤지컬, 예능프로그램, 솔로, 유닛 등 각 멤버들

이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며 독보적 인기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탄한 팬덤을 자랑하는 이들은 아시아, 유럽, 남미 등에서 제2의 한류 붐을 일으킨 주역으로도 꼽힌다.

●정규앨범의 자부심... '슈주의 새로운 부흥'

그런 이들이 데뷔 15주년에 맞춰 준비한 정규 10집이 세 번이나 연기되는 '아찔함'을 맞았다. 우여곡절 끝에 16일 새 앨범 '더 르네상스'를 내놓았다. 당초 데뷔 기념일인 지난해 11월6일 선보일 예정이었던 앨범은 여러 번의 편곡 작업을 거치고 또 거쳤다. 슈퍼주니어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

담회를 열고 "앨범이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팬들도 초조했을 테지만 우리 역시 걱정했다"면서도 "예전에 안무연습을 할 때는 티격태격하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멤버들이 더욱 풀풀 뭉치면서 물 흐르듯 준비할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사실 디지털 음원이 장악한 가요계에서 8곡 이상 수록하는 앨범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슈퍼주니어는 유닛 활동이나 스페셜 앨범을 제외하고는 정규앨범을 고집해왔다. 이들과의 자부심이다. 이번에도 모두 10곡을 담아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데뷔 17년 차 그룹 슈퍼주니어(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동·예성·시원·규현·이특·희철·은혁·동해·려욱)가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정규 10집 '더 르네상스'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레이블SJ



# 스포츠동아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www.sportsdonga.com

## 암기왕·관리왕·엄살왕...추신수의 '슬기로운 슝생활'

(SSG)

구단 가이드북 보며 매일 동료 얼굴 열공 무리하지 않게...20일 NC와 첫 실전 예고 대구서 만난 절친 오승환엔 "좀 살살해달라"

SSG 랜더스 외야수 추신수(39)는 1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연습경기에 앞서 팀 훈련을 소화했다. SSG 합류 이후 3번째 팀 훈련이었다. 추신수는 훈련을 마친 뒤 인터뷰를 통해 "몸 상태는 70% 정도다. 뛰는 것도, 던지는 것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3번째 타격훈련을 했는데 타이밍은 왔다 갔다 한다. 연습 때는 완벽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SSG에 적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아침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대신 'OOO입니다!'

추신수는 팀 동료들과 구단 관계자들의 이름을 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시즌 개막 이전까지는 동료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아침에 인사를 할 때마다 동료들의 이름을 듣고 있다. 이름을 외우는 건 미국 생활을 할 때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동료들의 얼굴과 이름을 매치하는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보니 이름을 들어도 얼굴과 연결짓기가 쉽지 않다. 이에 추신수는 구단에 선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고, 프린트는 팀 가이드북을 전달했다.

●20일 시범경기에서 첫 실전 유력

당초 추신수는 시범경기 직전 펼쳐지고 있는 연습경기에서 한두 차례 정도 타석에 들어서 실전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SSG 김원형 감독은 20일로 예정된 NC 다이노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에 추신수를 내보낼 계획임을 밝혔다. 김 감독은 "추신수는 시범경기가 시작하면 출전할 예정이다. 내일(17일)까지 포함하면 추신수가 그라운드에서 4번 훈련한다. 더 적응해야 한다. 큰 문제가 없다면 20일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신수도 감독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말하기 싫은 나이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나이가 있어 나도 조심스럽다. 의욕은 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 감독님의 견해를 존중한다. 이를 더 훈련하고, 시범경기에서 첫 실전을 갖는 걸로 얘기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난 친구 오승환

추신수는 이날 팀 훈련에 앞서 삼성 오승환과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동갑인 둘은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무대에서 추신수의 조언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오승환이 친구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다. 추신수는 "(오)승환이가 편하게 하려는 데와 맞진 않더라. 모든 걸 배워가는 입장이라서 아직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웃었다.

추신수는 오승환에게 "좀 살살해달라"고 엄살을 부렸다. 이에 오승환은 "미국에서 날 상대로 잘 쳤는데 살살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2번 맞대결했는데 내가 모두 안타를 때렸지만 좋은 타구는 없었다"며 친구의 면을 세워줬다. 대구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SSG 추신수(왼쪽)와 삼성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시절에도 함께했던 인연이 있다. 이들은 SSG-삼성의 연습경기가 열린 16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국내 복귀 후 처음 재회해 이야기꽃을 피웠다. 추신수가 오승환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대구 | 뉴스S



1879 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마련  
1879 골프대회

대회안내 www.1879golfgame.co.kr | www.1879golf.com | 031-735-1879



1879골프대회 상품권 판매중 187,900W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CENTURY 21CC		군산컨트리클럽		ARAMIR GOLF & RESORT		골프클럽 Q		New Seoul COUNTRY CLUB		포도CC	
2월		25일		18일		22일					
3월	2일	23일		16일		30일		29일			31일
4월	5일	7일		20일		29일					30일
5월	3일	12일		18일		31일		31일			24일
6월	7일	8일		15일		29일					30일
7월	5일	1~7일(미정)		20일		29일		30일			26일
8월	2일	2~6일(미정)		17일		31일		30일			23일
9월	6일	1~7일(미정)				29일					30일
10월	4일	1~7일(미정)		19일							25일
11월	1일	1~5일(미정)		16일		30일		29일			